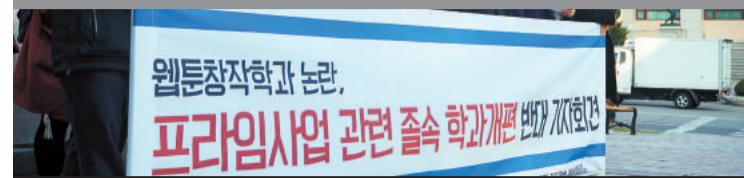


4~5》프라임사업 탈락을 바라보는 구성원



6~7》불안정한 노동환경 해결책은?



우정장학금(가계곤란)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16. 05. 29~2016. 05. 31

신청자격

①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해 소득분위 8분위 이하

② 2016-1학기 복학생은 등록학기 우정장학금 미수혜자 ③ 현재 재학중인 자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장학-응자신청-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 “계획안 계속 추진할 것 단, 속도 조절은 불가피”

&lt;미래정책원 신상협 원장&gt;

## 프라임사업 탈락 그 이후

박기윤 기자 kyoony7230@khu.ac.kr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 지난 3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프라임(PRIME)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학교는 학내 구성원의 기대와는 달리 안타깝게도 최종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약 10개월 동안 프라임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60여 차례가 넘는 구성원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소통이 부족해서 탈락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 신문은 이번 프라임사업 탈락을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시선과 이를 통해 우리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자 한다.

프라임사업은 정부와 대학이 사회 수요에 맞게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7월부터 프라임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교육부는 연간 150억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대형사업), 우리학교는 기존의 연계협력 클러스터와 부합한다는 명분으로 사업 참여 뜻을 밝혔다. 우리 신문은 그 동안 프라임사업 준비를 총괄적으로 진행해온 미래정책원(미정원)을 취재하며 프라임사업 진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미정원은 당시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8월 말 프라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프라임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해 11월부터다. 학교 측은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프라임사업 계획을 위한 워크숍, 소통위원회와 같은 소통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3월 21일 총장 주재 워크숍으로 프라임사업 계획서 제출 전까지의

소통은 마무리됐고, 3월 31일 미정원은 프라임사업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5월 3일 프라임사업 선정 발표 결과, 아쉽게도 우리학교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과 발표 후 대학은 총장 서신 등을 통해 입장장을 밝혔지만 내용에서 충분치 않아 궁금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미 프라임사업에 탈락한 몇몇 대학들은 재정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출했던 계획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하대 측은 “지원금 없이 새로운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중앙대도 정원조정 계획을 원점으로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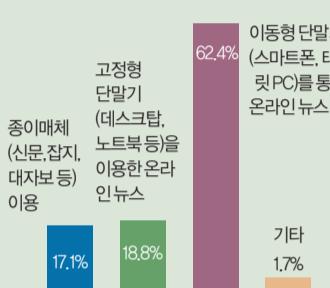
하지만 우리학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의 계획을 유지할 것”이라며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미정원 신상협(국제대학원) 원장은 “수차례 강조했지만 우리는 프라임사업 만을 위해 이번 논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학교가 나아가려고 했던 바와 교육부가 제시한 프라임사업의 방향성이 부합했기에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라임사업에서 탈락해 선정됐을 때만큼 빠른 추진은 힘들겠지만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탈락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 원장은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지표나 점수를 공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탈락원인은 우리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다만 선정된 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의 계획서가 부족해서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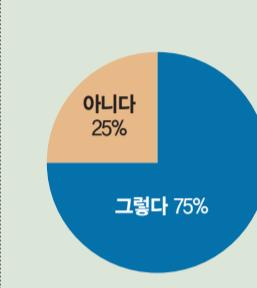
▶4면으로 이어짐

## ‘구성원 교내 미디어 이용’ 설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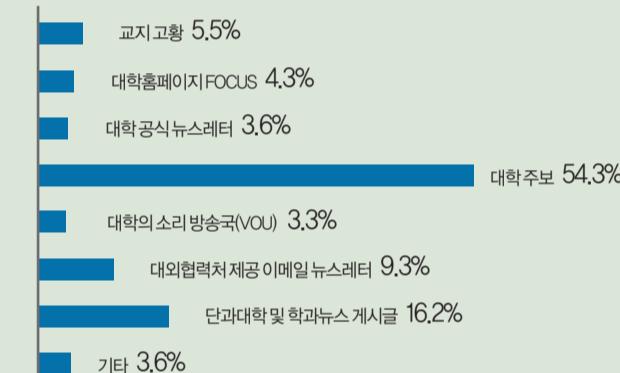
## Q1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학내뉴스를 이용하나요?



## Q2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십니까?



## Q3 아래 매체 중 학내뉴스를 이용할 때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 Q4 아래 매체 중 학내뉴스를 이용할 때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 조사기간: 2016.05.09.~2016.05.16. / 조사방법: 이메일 대량 설문조사

▶관련기사: 9면

##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 무엇인가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⑯

김병진 후마니티스칼리지 교수

현대 사회에서 돈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고, 가치의 저장 수단이자 지불 수단이며, 가치 척도로서 기능한다. 학계에서는 화폐의 이러한 기능을 주로 연구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여기서 몇 단계 더 나아간다. 짐멜은 <현대 문화에서의 돈>(1896)이라는 에세이에서 근대적인 사회결합과 개인주의, 물신(物

神) 송배, 근대적 세계상을 돈과 화폐경제로 분석하는데, 이 에세이에서 짐멜은 돈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관계, 즉 문화나 사회관계의 이

중성과 모호성에 주목한다. 결합, 연결, 관계, 끈, 얕힘, 거리, 해체 등 다채로운 연관어도 돈과 화폐경제에 의해 형성되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복잡성을 환기시킨다.

짐멜에 따르면, 근대 이전의 사회는 인격적 유대에 기반한 사회적·도덕적 책무로 결합한 ‘삶의 공동체’였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 결합은 자본주의, 도시화와 산업혁명 등의 여러 충격으로 해체된다. 그 중에서 특히 화폐경제의 발전은 금전적 인 거래에 기초한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게 했다. 즉, 돈은 비인격적이고 특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과 집

단을 순수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새롭게 결합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화폐 거래는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인간 소외의 비극을 낳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대해 짐멜은 화폐 경제가 근대인에게 경제행위에 미증유의 비인격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양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돈에 의한 의무의 지불로 인간은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해방되고, 극단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11면으로 이어짐

## 알림

## 사령

면

&lt;편집장&gt; 이시은 기자(컴퓨터공학 2011)

명

&lt;편집장&gt; 김도업 기자(정치외교학 2012)

## 정정보도

1606호 4면 ‘통섭적 인재 기틀구축 … 설립 목적 상실한 자율전공학과’에서 타 학과 전공은 ‘자유이수학점’이 아닌 ‘기타학점 공통’으로 이수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정정합니다.

**이번 호는 개교 67주년, 대학주보 창간 61주년 기념 특별 호로 12면 발행됩니다.**

# 시선

## 사설

### ‘찾아가는 진정성’, 그것이 오늘의 소통이다

대학이 아무리 소통에 대한 진정성과 노력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구성원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가려 한다면 거기에선 그 어떤 생산적 논의도 이끌어낼 수 없다. 결국, 소통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 맞는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학과 구성원 간에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통을 통해 구성원은 학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식과 자각을 갖게 되고, 이로써 대학에 대한 로열티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구성원의 강한 로열티가 대학 발전의 가장 든든한 한 축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프라임사업에서 교육부가 사업에 대한 구성원 간 합의와 소통의 문제를 강조했던 것도 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소통’을 평가지표화한 것 자체는 교육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혐의를 배제할 수 없지만, 소통을 통한 구성원의 참여가 학교 발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는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우리 대학은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는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이메일 뉴스레터 시스템, SNS계정 등이 그것이다. 특히 SNS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성원의 숫자는 대학가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든다. 그런데도 우리학교는 소통을 잘 못한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보유하고 있는 매체와 채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는 누군가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메일 뉴스레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유통되고 있다. 지난 19일에 발송된 총장 명의의 서신은 ‘프라임사업 이후’에 대해 가장 관심도가 높을 학생 구성원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 SNS계정은 각 SNS 고유의 문법에 맞는 게시물이 아니라 대학이 일방 설정한 단일한 문법을 쓰는 게시물로 채워지고 있다. 경희대의 SNS계정은 ‘핫’하지 않다.

구성원이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소통’이라고 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소통이란 학교가 한 명 한 명의 구성원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예상과는 달리 극히 일부의 구성원만 참여했던 지난 프라임사업 설명회의 살풍경했던 모습에서 대학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프라임사업에 대한 구성원의 저조한 인식’이 아니라 ‘달라진 소통의 패러다임을 깨닫지 못한 대학’이 되어야 한다.

대학주보는 3년 전부터 매체다변화 및 모바일 최적화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온 끝에 독자 수가 증가하고 댓글 등 미디어 참여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효용을 잊어 가던 전통적 외형’을 탈피해 혁신과 발전의 계기를 모색한 사례는 이외에도 솔하다. 엄숙한 국가기관인 부산경찰청이 SNS를 통해 이미지를 혁신한 사례나, 죽어가던 콘텐츠였던 한국민속촌이 적절한 소통방식 하나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대학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진 자산을 재정비하고 오늘의 환경에 맞는 언어와 접근법으로 구성원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번 대학주보 창간 1주년 맞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가 갖는 대학 측에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면일 것이다.

### 제2외국어 듣고 싶지만...

### 학점 때문에 ‘부담’

### 절대평가나 P/F제도 고려 필요

미디어 여론동향 2016.05.09 ~ 05.20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제2외국어’ 구사가 자기계발 및 스펙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많은 학생들이 관심도에 비해 실제 제2외국어 과목 수강을 꺼려하고 있다. ‘맘 편히 외국어 강의를 신청하고 싶어요’... 제2외국어 강의 수강 망설이는 학생들/대학주보 온라인, 2016.5.13) 현지 출신이나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인해 학점을 손해볼 수 있다는 걱정이 주요 원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강의가 해당 언어를 쳐



### 이주의 주제 - 시간강사 처우 문제

## “시간강사도 경희의 구성원으로”

양윤혁 (정기자)  
yangyun0820@khu.ac.kr

지난 정기교과개편 이후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에서는 해촉 시간강사에 의해 그들의 처우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후마니타스교육자협의회(교협)가 출범한 이후 어렵게 협의 자리가 마련됐다. 시간강사 측은 지난 학기 족박한 시간으로 교과과정개편이 출범으로 처리됐으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후마 측과 교협 측의 공식 만남에서 두 가지 요구안(▲교과과정개편에의 시간강사 참여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TF운영)을 제시했다. 당시 서울캠 후마 유정완 학장은 요구안을 수용하는 한편 선결조건으로 상호 근거 없는 비방 금지 조항을 내걸었다. 하지만 강사 측은 회의 결과 학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해 협의는 결렬됐다. 최근에는 부당해고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후마니타스 장례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촉 이후 지금까지 약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취재를 하면서 후마 측과 시간강사 측의 긴 논의과정을 지켜봤지만 여전히 협의는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후마는 2011년도에 출범해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학교의 ‘상징’이 됐다. 후마의 성공적인 출범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모두가 인문학을 도와시킬 때 우리학교는 시간강사, 객원교수,

전임교원들 모두가 보수와 지위에 상관없이 모였다. 인문학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양대학을 성공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주 세미나를 열었다.

하지만 후마 출범 이전부터 우리학교를 위해 힘써 온 시간강사들은 이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시간강사들은 학교에 의해 정리됐다. 그들은 ‘후마니타스’를 내건 경희대 조차 함께 온 시간강사를 내치는 모습에 씁쓸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시간강사 처우는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는 행정 절차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시간강사 측은 인간적인 측면과 학문 공동체를 주장한다. 양자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실과 이상의 대립처럼 보인다.

후마 측에 있어 시간강사는 학기단위로 계약하는 노동자다. 시간강사는 자신들을 학교라는 교육 기관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자이며, 특히 후마의 교육철학을 볼 때 단순한 행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전인격적 판단에서 함께 후마의 일부로 인식해주시길 바란다. 시간강사 중에는 후마 출범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사람들도 있다. 지금까지 교양교육의 한 축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학기 단위로 위촉된다면 해도 학교의 사정에 따라 큰 고민 없이 대체해도 될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자도 당장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먼저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시간강사 역시 우리학교의 교육의 한 축을 차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케케묵은 이 문제를 풀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읍 접하는 것을 전제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어 고등학교에서 미리 해당 언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언어 유경험자의 수 강신청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이에 학점 평균에 영향을 주지 않는 2학점의 P/F 형태로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연세대 총학은 절대평가와 2학점 P/F 제2외국어 과목 개설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는 국제캠 예술디자인대학 모 학과의 ‘집합’ 제보글이 인기가 높았다. ‘오늘(17일) 저녁11시에 070-070-070과 내부 대연습실에서 전체집합 있을 예정이다. 교수님의 엄격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유 불문 집합과 기합이 이뤄진다’(#경희술\_14559, 2016.5.18)는 글에서 글쓴이는 ‘얼마 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학교 내부 집합과 기합에 대해 방송됐는데 그 모습이 우리학교 안에서도 여전히 이뤄진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189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소식 접하자마자 사실 확인하고 대학주보에 제보했다’, ‘군기 잡고 싶으면 재입대 해라’,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학과가 있다니’ 등의 반응을 남겼다.

17일 저녁 강남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추모 글도 큰 반향을 얻었다. ‘남혐이고 여혐이고 관심 없고 사람 생명이 우선인 문제인데 왜 포커스가 이상하게 가는지 모르겠다’(#경희술\_14573, 2016.5.19)는 글은 189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137개의 ‘좋아요’를 받은 한 댓글은 ‘생명이 우선인 문제기 때문에 여혐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왜 여자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가’하고 사건을 비판했다. ‘사실 놀랄지도 않다’(#경희술\_14569, 2016.5.19)라는 글의 글쓴이는 ‘오늘 하루 앞으로 마주해야 할 깊은 공포를 경험했고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씩씩하게 걷는 것 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다’고 썼다. 학생들은 저마다 ‘이번엔 피해자가 여자였을 뿐, 재벌2세가 날 찔러 죽이면 죽망받던 재벌2세의 인생이 불쌍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갈 나란다’,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공론화 해야한다’, ‘여고시절 ‘어제 변태봤어’는 매우 흔한 주제였다’, ‘글쓴이와 댓글들을 보면 당신들의 목소리로 여성을 배워갑니다. 고맙습니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 구성원은 사업탈락보다 참여 배제에 더 불안하다

세시봉

김도엽 (편집장)



우리학교가 프라임사업에 최종 탈락한지 20일이 지났다. 하지만 사업의 여파는 ‘탈락’이라는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는 듯하다. 많은 구성원들은 대학이 결과와 관계없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지가 현실화될 지에 궁금해 하고 있고 발표 전에도 불만스러워하고 발표 후에도 답답해하는 그 ‘소통’에 문제를 느끼고 있다.

미래정책원은 프라임사업을 준비하면서 62회의 공식 소통을 진행했다고 하며, 경쟁 대학과 비교해도 그 의지가 결코 부족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통의 상대방인 구성원들은 우리신문이 진행한 프라임사업 관련 설문조사에서 소통을 잘못했다(매우 잘못했다 포함)는 쪽에 63.7%의 응답하고 있다. 설문 응답자가 1,500명을 넘긴 조사였기에 일부의 의견으로 보기로 힘들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일단 구성원의 관심이 부족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단과별로 열린 프라임사업 설명회에 평균 20~30명 정도의 구성원이 참여하는데 그쳤고, 지난 4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진행한 프라임사업 계획에 대한 정책투표 역시 투표 자체는 성립됐지만 투표율은 26.5%에 그쳤다. 구성원들이 사업에 대해 갖는 관심이 현저하게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구성원의 낮은 관심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냈어야 할 학교의 소통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애초 대학은 프라임사업 소통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게시판 하나가 활발한 논의를 담보하기는 힘든 것而已。

단과별로 시행된 설명회 또한 설명회 몇 일 전 급한 공지 문자를 돌렸을 뿐 구성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내용있는 소통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결과 발표 이후에도 대학은 구성원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 5월 3일 발표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대학은 공식적인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주 목요일(19일)에야 처음 나온 총장 명의의 ‘유감’ 서신은 가장 궁금해 할 학생에게는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 준비 단계에서 발표 이후 마무리까지 어설프기만 하다.

발표 이후 어렵사리 취재가 성사된 지난 19일 미래정책원 신상협 원장은 “많은 소통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탈락이라는 결과는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번 준비과정에서의 소통 경험을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만족스럽지 못했던 ‘소통’을 아쉬워하는 기색이었다.

이제는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 앞서 거둔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프라임사업 계획에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장기적인 학문단위 재조정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반대하는 쪽보다 10% 가량 높았다. 신 원장의 말처럼 향후 학문단위 재조정 과정에서는 이번 소통 부족을 겨울삼아 생산적인 논의가 구성원들로부터 나오게 해야 한다. 구성원은 사업 탈락 그 자체보다 장기적인 학문단위 재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대학은 살펴야 할 것이다.

## 알림

### 대학주보에

###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혜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경기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덕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기획

▶ 1면에서 이어짐

이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생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미정원 서경아 부원장은 “우리가 제출했던 계획서의 내용과 교육부가 지향했던 방향이 다소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며 “지표상으로는 선정된 대학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미정원 측은 논란이 됐던 소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전했다. 서 부원장은 “소통은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학생들이 부족했다고 느꼈다면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정원 김종백(사회학) 부원장 역시 “비록 사업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학교와 학생들이 불편한 문제에 대해 마주앉아 서로 간에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다”며 “프라임사업과는 별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만큼의 속도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밀도있는 소통을 요구했음에도 정작 실질적인 자리에서는 호응이 다소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신 원장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미래정책원과 부총장이 각 단과대학 별로 공청회와 설명회도 개최했으며 공식적으로 62차례, 비공식적으로는 100회가 넘게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참여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라며 “학생들 역시 본인들의 주장에 책임감을 갖고 본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된 다른 학교들은 재정지원을 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에서도 면밀히 수용할 수는 없다”며 “느리더라도 꾸준히 변화해가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학본부는 프라임사업과 함께 진행됐던 ‘Add on track’과 5대 협력 연계클러스터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장을 밝혔다. 미정원 김종백(사회학) 부원장은 “‘Add on track’ 역시 우리가 이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인 만큼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오는 2학기부터는 구성원의 피드백을 받은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대 협력 연계클러스터 역시 마



###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신설

### 위한 교육부 승인 신청 상태

### 외대 교수, 16일 긴급회의 진행

### ‘소통 부재, 단체 행동 있을 수도’

찬가지다. 클러스터 사무국의 안남일 국장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해서 진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사업 탈락 후, 몇몇 소규모 사업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의 신설과 컴퓨터공학과 추가인원 배치를 위해 교육부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공과대학, 외국어대학(외대),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에서 각각 인원을 줄이고 대신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는 60명의 정원이, 컴퓨터공학과는 18명의 인원이 추가 배정된다. 하지만 관련 사업 계획서 제출기한인 20일에 맞춰 다소 급하게 진행되다보니 합의과정에서 인원 조정 문제로 국제캠 구성원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외대 교수들은 이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외대 민관동(중국어학) 학장은 회의에서 소통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 학장은 “갑자기 아무런 말없이 다른 학과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소통과 절차가 부재한 것 같다”며 “이와 관

련해 아직까지 외대 교수님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교수들의 단체 행동으로 이어질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민 학장은 프라임사업 탈락 후 코어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재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대 교수들은 인문학이 위축될까 걱정하고 있다”며 “현재 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코어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정원은 “각 단과대학 별로 줄인 정원이 전자정보대학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한 개의 학과만으로 단과대학을 신설할 수는 없기에 몇 개 학과가 추가로 신설된 후에는 별도의 단과대학으로 분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프라임 사업에서는 공과대학 인원을 이동시킬 수 없었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입학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며 “교육부에 정원 이동 승인 신청 제출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직접 방문해 다시 한 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라임사업 탈락을 두고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입장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교

수의회는 프라임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을 통해 교수의회는 “대학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부 지원 없이도 자체 역량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프라임사업 선정 탈락과 향후 대책에 대한 총장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교수의회는 “자구적인 재원조성, 학사구조와 행정 조직 개편을 통한 안정된 대학재정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신 말미에는 “프라임사업 선정 탈락이 구성원 간 불화와 갈등, 책임회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학교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대학본부 뿐 아니라 교수와 학생, 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빼를 꺾는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총학)도 프라임사업 탈락 이후 학교의 프라임사업 원안 진행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정주희(사학 2012)회장은 “정책투표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학생회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했다”며

### 201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일시	장소	대상
2016.05.27(금) 10:00~17:00	예술·디자인대학 415호	외국인 학부생·대학원생

	시간	프로그램	내용
1부	10:00~10:30	개회사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30~12:00	적성검사 분석	자기이해 및 직업유형 파악
2부	12:00~13:00	점심	학생식당
	13:00~14:30	채용서류 작성법	채용과정의 이해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14:30~15:00	휴식	간식제공
	15:00~16:30	취업전략 강의	글로벌 취업전략 (외국인유학생 취업기법·업종)
	16:30~17:00	수료식	만족도 조사 및 기념촬영

신청 및 참가비	수업관련 사항
● 신청 : 학교 및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참가비 : 무료(중식 및 간식, 기념품 제공) ● 모집기한 : 5월 25일(수)까지	프로그램 참여시 수업출석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전 발행

● 문의 : ☎ 031-201-3961, hannadi0223@knu.ac.kr

국제캠퍼스 국제교류처



### 2016학년도 1학기 교수법 특강 안내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교수님들의 Teaching 능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주제로 교수법 특강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일시	장소	김성학 (예수원 대표)	대상	신청기한	주최/주관
▶ 주의 집중을 위한 스팟 기법 ▶ 학생 참여형 교수 기법 ▶ 수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인드 셋업	2016.05.24.(화) 12:00~13:30	멀티미디어관 112호		경희대학교 교원 전체	2016년 5월23일(월)	교수학습지원센터(국제) ☎ 031-201-3954

※ 문의 : 김희정 선임연구원 Tel. (031) 201-3950~5, 학생회관 111호

경희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의회 “자구적인 재원조성, 학사·행정 개편부터”**  
**서울 총학 “사회 수요에만 경도된 원안 수정돼야”**  
**국제 총학 “캠퍼스 본·분로 인식 청산할 기회 놓쳐 아쉬워”**  
**직원 노조 “학문단위 재조정 단과대학 수 조정에서 시작”**

“하지만 프라임사업의 방향이 단순히 사회의 수요에만 집중한 것이고, 이는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에 어긋나기에 기본적으로 원안에 대해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라임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만큼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이의이 되는 방향에 대해 학교 측과 보다 면밀하게 조율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제캠 총학 김병경(체육학 2009) 회장은 먼저 “프라임사업을 캠퍼스 간 본·분교 인식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찬성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프라임사업에 탈락한 것은 유감이다”라며 조심스럽게 국제캠 총학이 생각하는 탈락 원인을 전했다.

김 회장은 “지금 분위기를 보면 좀 더 과감하게 사회수요에 맞는 과를 증원하거나 확실한 행동을 보였어야 하는데 ‘네이터과교과’나 ‘바이오헬스산업과’ 같은 애매한 학과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에 선정된 대학교와 우리학교를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의 실망이 크다”며 “프라임사업 선정이 끝난 지금, 우리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총학, 단과대 학생회 대표들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임사업 계획서 상 가장 큰 개편이 예상됐던 생명과학대학은 아직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생명과학대학 백광희(유전공학) 학장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백 학장은 “개편에 관한 내용은 의논 중이며, 각 학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는 학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생명과학대학 학생회 김대일(식품생명공학 2013) 회장은 “프라임사업에서 탈락한 이상 당장 개편이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

용은 오는 10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프라임사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많은 정보교환과 협의 체계를 만드는 것에 행정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월 내로 지금까지의 현황을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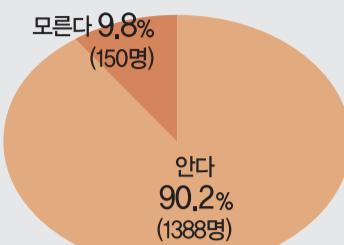
직원 측 대표인 노동조합 송혜경 위원장도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프라임사업 실패에 대해 직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먼저 유사·중복학과 통합과 같은 학문단위 재조정이 있은 후에 프라임사업에 지원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나 외부 지침에 의해 서라기보다 자율적으로 학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원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던 학문단위 재조정은 단과대학 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단과대학 수를 줄이지 못하면 정원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단과대학 수를 줄이면 보직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반가운 소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과대학 수를 줄여야 나중에 학문단위 재조정이 수월할 수 있다”며 이는 위원장 개인의 생각이 아닌 조합원들의 의견임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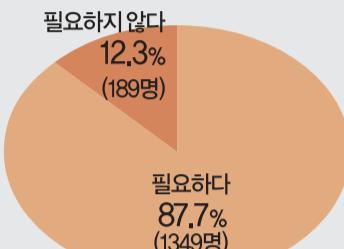
더불어 “자율운영제로 운영된다면 단과대학에 힘을 더 실어줘야 하는데 현재는 직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면 비대해지는 중앙부서의 인원 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중앙부처도 이번 프라임사업을 계획하면서 학문단위 재조정이 있을 거란 말을 듣고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사업 기한을 맞추느라 거론 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프라임사업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며 “노동조합 차원에선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중심을 두지 말자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조심스럽게 다시 접근을 할 때다. 원점이든 중간지점이든 다시 돌아가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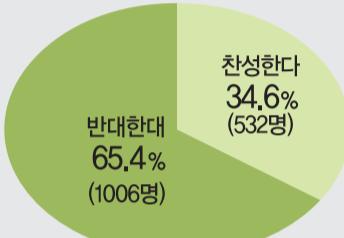
**프라임사업 선정  
최종 탈락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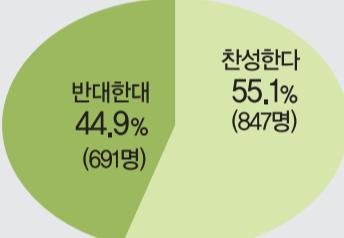
**프라임사업 최종  
탈락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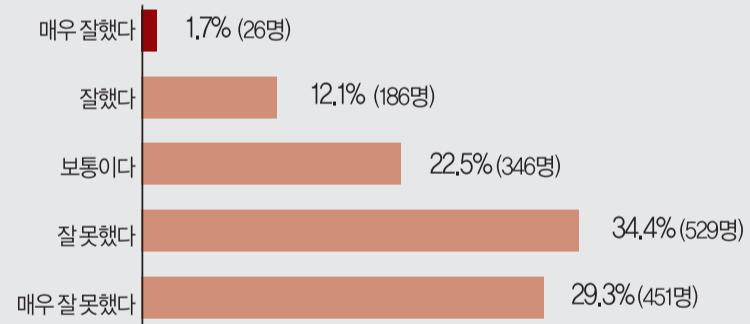
**탈락 후에도  
프라임사업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라임사업과는  
별개로 학문단위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측과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사기간: 2016.05.17.~2016.05.20. / 조사방법: 이메일 대량 설문조사

**원안 추진 65% 반대,  
학문단위 조정 55% 찬성**

박기윤 기자 kyoony7230@khu.ac.kr

우리신문은 지난 3일 프라임사업 탈락 이후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지난 17일 진행한 이 설문조사에는 나흘 동안 총 1,519명의 구성원이 참여하며 프라임사업 이후 높아진 관심도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프라임 사업의 결과를 알고 있느냐는 문항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88명(90.2%)으로, ‘모른다’고 응답한 150명(9.8%)을 압도했다. 한편 프라임사업 준비기간 내내 이슈로 대두되어온 ‘소통’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는 응답이 26명(1.7%), ‘잘했다’는 응답이 186명(12.1%)에 그친 반면, ‘잘 못했다’는 응답은 529명(34.4%), ‘매우 잘 못했다’는 응답은 445명(29.3%)으로, 전체 응답자의 965명(63.53%)이 소통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응답자 중 87.7%에 이르는 1,349명이 ‘프라임 사업 탈락에 대해 학교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탈락 후에도 ‘프라임사업 계획서 제출안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학교에 입장에 대해, 구성원의 1,006명(65.4%)이 ‘제출안대로의 진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응답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대학과 대학 구성원의 사고를 정부와 대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획일화 시켜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본교 계획안은 본, 분교 문제, 학과 간 이기주의, 구성원 간 갈등이 내포된 많은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프라임사업 계획안을 절대 추진해선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학 관련학과를 신설·육성 하려면 재정계획이 탄탄해야 하는데 현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전망이 좋지 않다’는 현실적 견해도 제시됐다.

하지만 학문단위재조정 작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847명(55.1%)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프라임사업의 기조에는 반대하지만 현실적 차원에서의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원(미정원) 신상협 원장은 “우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 구성원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은 것 같다”라며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문단위재조정과 프라임사업 계획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일시 : 2016. 5. 23(월) ~ 26(목) 5pm  
 장소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다목적홀 (102호)  
 Dance & Performing Art Hall, School of Dance, KU, Seoul  
 주최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School of Dance, Kyung Hee University  
 후원 : 무용학부 48대학생회 · 문화아이템팩토리센터 Contact : 02)961.0539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6.05.04(수)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에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시간표 공지 참조
학점교류생	추천기한: 2016.05.30(월) 17:00 까지 학번부여: 2016.06.07(화)	학번부여 SMS 안내 문자 발송
수강신청기간	2016.06.14(화) 10:30 ~ 06.15(수)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폐강공고	2016.06.15(수) 12:00 (火)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6.06.16(목) ~ 06.20(월) 16:00	하니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증명기간 (폐강과목 수강생)	2016.06.21(화) 09:00 ~ 17:00	후나이너스클리리지 행정실 방문 (폐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6.06.22(수) ~ 07.03(수)	
성적발령(정성)일	2016.07.15(금) ~ 07.18(월)	

**2. 수업안내**

가.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 캠퍼스	1학점(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 캠퍼스	1학점 / 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14:50			3학점	1교시	09:00~11:45
	2학점	1교시	10:00~11:50		2교시	13:00~14:50	
	2교시	13:00~14:50			3학점	2교시	13:00~15:45

나. 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확인: 2016.05.04(수)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참조

3. 수강신청

가. 수강 가능 학점: 최대 6학점

1) 학점교류, 국제교류처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연수활동,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과 동시에 수강 가능  
 2) 단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나. 수강신청 방법  
 1)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성 등록)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계절학기 수강신청 링크 클릭→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4. 수강등록**

가. 등록금액: 1학점당 89,000원  
 나. 등록방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등록마누 증 [계절학기 등록금 인내] 침조  
 1) 입력사항: 학년(2016학년도, 학기) 여름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2) 확인사항: 신청과목과 납부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니은행 계좌번호 확인  
 다. 납부방법: 생성된 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수당부여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당부여를 기준으로 등록기간 내에 완납하기 바랍니다.

**5.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기간	환불금액	수강취소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등록일 ~ 2016.06.21(화) 17:00	전액 환불	후나이너스클리리지 행정실 방문 → 계절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
수업개시일 1/3 경과 전	2016.06.22(수) ~ 06.28(화) 17:00	수강료의 2/3 환불	(본인명의 통장 사용 동봉)
수업개시일 1/3 경과 후	2016.06.29(수) ~ 2016.07.01(금) 17:00	수강료 1/2 환불	*
		반환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함	※ 폐강과목수강자 포함

\*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수업개시일 1/

# 청소노동자 ‘경희모델’, 구체적인 논의 시작돼야



불완전한  
노동환경  
해결의  
실마리는?

#.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 정규직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는 비정규직을 늘려 원가를 절감하고 고용의 유연화를 달성하는 반면, 그럴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으로 고통 받게 된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은 교직원의 채용형태를 점차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청소노동자나 시간강사 등에 대한 처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학의 필수 구성원인 이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은 재정 문제라는 그늘 아래 외면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청소노동자와 시간강사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짚어본다.

## 청소노동자 직고용 어디까지?

강경진 기자 cocoandisa@khu.ac.kr

우리학교를 포함한 대다수 대학은 청소노동자를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고 있다. 대학은 이를 통해 인력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직고용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측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 직고용 시 비용 부담이 크다”며 “재정 문제로 대다수 대학이 용역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대학 가에 불거지고 있는 청소노동자 부당처우가 이런 고용형태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학교가 용역업체를 사이에 두고 청소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대학은 비용 일체를 지급할 뿐, 노동환경에 대한 관리는 용역업체에서 담당하므로 대학은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청소노동자 부당처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고용’이 전제돼야 한다.

# '해촉' 통지 발단, 열악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 계기 될까

불완전한  
노동환경  
해결의  
실마리는?

#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주제로 자리 잡았다. 정규직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는 비정규직을 늘려 원가를 절감하고 고용의 유연화를 달성하는 반면, 그럴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으로 고통 받게 된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은 교직원의 채용형태를 점차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청소노동자나 시간강사 등에 대한 처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학의 필수 구성원인 이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은 재정 문제라는 그늘 아래 외면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청소노동자와 시간강사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짚어본다.



## 후마 - 시간강사 갈등, 왜?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일방적 대학 구조조정 반대한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시간강사 부당하고 철회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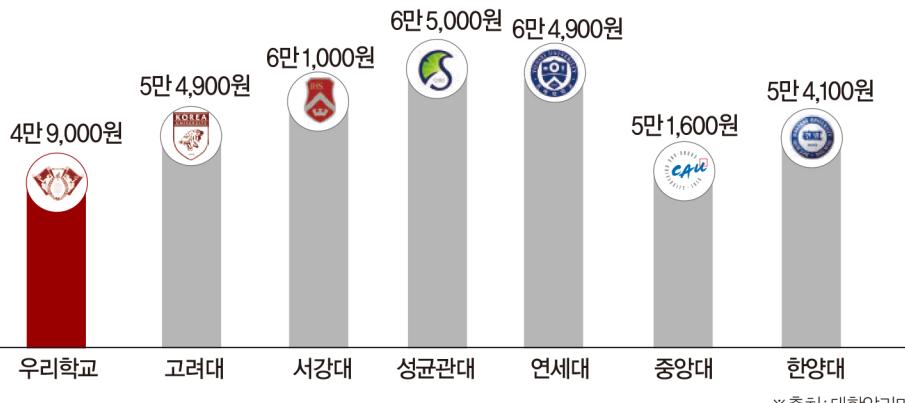
지난 12일 정오에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후마니타스 장례식’이 진행됐다. 우리학교 학생과 시간강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경희현재리포트’가 주최한 행사였다. 20명 가량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가 강사를 ‘그때그때 강의하는 소모품’으로 취급하면서 ‘행복한 인문학’과 시민성을 가르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후마 출범 당시 ‘성숙한 인간’을 키운다는 교육목표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시간강사 해촉문제가 불거진 뒤 서울캠에는 관련 대자보가 게재됐다. 교과과정 개편과 맞물려 후마 소속 시간강사의 처우 문제가 이슈가 됐다. 후마에는 타 단과대학에 비해 소속된 시간강사가 월등히 많다.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후마는 전임교원 비율이 서울캠 34.1%, 국제캠 24.8%다. 전체 단과대학 평균인 56.1%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2015학년도 2학기 교과과정개편에 따라 서울캠에서는 45명의 시간강사가 해촉됐다. 국제캠 후마 층은 시간강사 해촉 인원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캠 역시 시간강사강좌 수가 2015학년도 2학기 286개에서 2016학년도 1학기 179개로, 총 107개 줄어들었다. 시간강사들이 대개 1~2개의 정도를 담당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국제캠도 서울캠과 비슷한 정도의 해촉 인원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캠 후마에서 해촉된 시간강사들은 지난 해 말부터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알렸다. 이후 전임교원, 객원교수, 시간강사를 포함한 후마니타스교육자협의회(교협)를 구성했고, 이를 계기로 시간강사 층과 후마 층은 시간강사의 처우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논의 과정에서 교협 층은 후마 층에 ▲교과과정개편에 시간강사 참여 ▲시간강사 처우 개선 TF운영을 요구했다. 후마 층은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상호 근거 없는 비방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교협을 비롯해 강사모임에서는 이를 독소 조항으로 판단했다. 학교와 시간강사가 고용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시간강사 개인의 SNS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결국 양 층은 최

## 2015년도 주요 대학 시간당 평균 강사 강의료



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교협, 후마와 합의 실패

### 걸림돌은 ‘근거없는 비방 금지’ 선결 조건

이후 강사 모임은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2일에 있었던 후마 장례식도 이 활동의 일환이었다. 지난 16일에는 강사모임, 후마대학생위원회와 단과대학 학회 등의 단체가 참여해 ‘시간강사 부당하고 철회 및 대학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당국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도 해고가 아니라 ‘강의 미의뢰’라고 이야기한다. 중복수업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를 비판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후마니타스 교육 이념을 후마 스스로가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강사의 처우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간강사들은 현재 노동 안정성과 임금 문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간강사가 느끼는 고용불안의 배경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시간강사들은 계약방식에 있어 ‘학기’ 단위로 위축된다. 통상적으로는 최소 2학기 이상 한 학교에서 수업을 맡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계약이 학기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기 말마다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시간강사 A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간강사들은 학기 말만 되면 강의 위촉에 관한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다”라며 “다음 학기는 어떻게 될지 불안에 떠는 것이 일상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시간강사규정 7조에는 ‘연속하여 최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항목

“시간강사들은 방학기간 동안 급여가 없고, 강의 시간 외에 준비 시간도 고려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급여로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학기가 끝남과 동시에 시간강사들은 학내 와이파이, 종양도서관,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이 제한된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간강사들은 학교에 애정을 갖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시간강사 B씨는 “시간강사를 줄이는 것은 사회적 흐름이지만, 후마가 출범한 당시에는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모두 지위와 상관없이 힘을 합쳐 훌륭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학교를 발전시키자는 목표로 함께했다”며 “전반적인 시간강사 감축 흐름에 우리학교조차 함께 해온 강사를 내치는 모습에 슬픔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복수의 시간강사에게서 여러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학교 측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할 통로나 교섭할 수 있는 통로는 마땅찮다. 시간강사 A씨는 “학교 층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하다”며 “이번 교과과정 개편에서도 수차례 논의 위원회가 열렸지만 시간강사가 참여한 적은 없었고, 직접 참여해 아니더라도 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말했다. 후마 층에서는 교과과정 개편에 전임교원, 객원교원, 학생 대표의 참여가 있었지만 시간강사의 참여는 없었으며, 시간표 편성 시 요일 및 시간 조정이나 학기 조정 등에 대해서는 PD(Program Director) 교수 또는 행정실과 논의를 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또한 후마 출범 이전 개별 단과대학에서 교양 강좌를 만들던 시절과 비교해 시간강사 A씨는 “교양대학이 비대화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공동체적 관계가 파괴됐다”며 “후마는 교원 사이의 연대가 없어 학교 층과 논의할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협 층은 이와 같은 시간강사가 당면한 문제들을 당장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시간강사와 함께 논의해가는 입장이다. 대학당국도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진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 선결조건으로 걸려있던 ‘상호 근거없는 비방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논란은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이번 학기도 5주 남은 가운데, 학생에게는 반갑고 시간강사에게는 힘든 병학이 다가오고 있다.

## 특집

# 대학주보 뉴스 이용 경로, ‘모바일’·‘소셜미디어’로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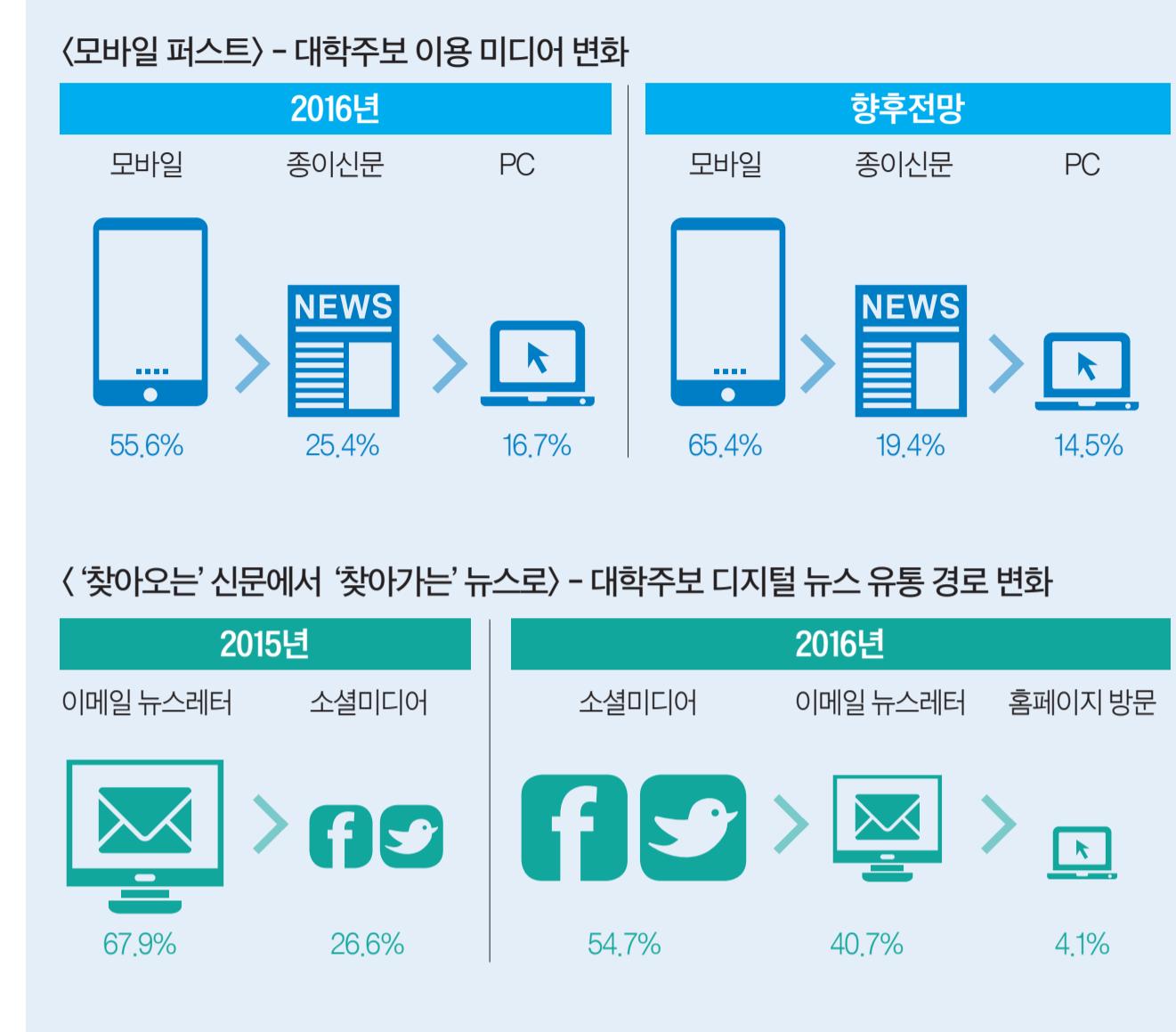
창간 61주년 기념 이용자 설문조사

차관호 기자 jyppfhv@knu.ac.kr

# 대학주보는 지난 12일, 창간 61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의 나이를 맞이한 대학주보는 그간 학내 유일의 언론이라는 깨지지 않을 지위를 누려왔다. 하지만 2013년 대학주보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매체’, ‘가장 신뢰하는 매체’ 부문에서 대학 공식 매체 등 타 매체에 비해 낮은 결과를 받아들고 깊은 위기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내 유일 매체’라는 환상 속에 감히 독자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결과에 다름 아니었다. 이제 2013년 이후 3년여에 걸친 ‘혁신’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독자의 의견을 통해 중간 점검해 본다.

우리 신문은 2013년 하반기 이후 뉴스의 디지털화와 모바일 최적화, 소셜 미디어를 통한 기사 유통 체계를 좀더 가속화해왔다. 이미 2013년 이전에도 이러한 노력은 진행해오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 2010년, 기존 온라인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겨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작했다.(대학주보 제1455호 1면, 2010.03.01) 2012년엔 속보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페이지를 강화하고 SNS 운영을 통해 독자에게 더 빠르고 생생한 현장을 전하려 했다.(대학주보 제1508호 1면, 2012.03.05.)

## 종이신문에서 모바일로 이동 고정형 단말기 이용자 줄어



일 발송하면서, 강화된 소셜미디어와 함께 독자와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기도 했다. 대학주보의 형식과 내용 전 부문에 걸친 그간의 혁신은 학내 구성원의 신뢰를 다시 찾는 결과로 나타났다. 2013년 단과대학 홈페이지(30.9%)와 당시 문화홍보처 제공 이메일 뉴스레터(21.4%)에 자리 내 줬던 (대학주보 19.2%) 학내 매체 이용 순위는 2016년 조사에서 54.2%로 1순위를 차지했다. 단과대학이나 학과 홈페이지는 16.1%로 여전히 구성원들이 자주 찾는 매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페이지의 이메일 뉴스레터 역시 9.2%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관련 그래프, 1면)

신뢰도 되찾았다. 2013년 설문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무엇’이나 질문에 대학주보는 응답자의 17.4%의 선택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학과 홈페이지의 34.0%는 물론 당시 문화홍보처의 이메일

뉴스레터 17.7%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올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8.3%가 학내 매체 중 대학주보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개별 기사에 대해서도 ‘대체로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가 각각 65.4%, 6.5%로 나타났다. 단과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도 15%로 높게 나왔으며 홈페이지의 이메일 뉴스레터는 응답자 8.1%가 가장 신뢰한다고 답해 세 번째로 자리했다.

대학주보 이용과 관련해서도 ‘모바일과 소셜미디어’라는 지구적인 미디어 ‘화두’는 대학주보라고 다를 수 없었다. 대학주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종이신문에서 모바일로 변화했다. 2013년과 2014년 설문조사에서 각각 응답자의 32.6%, 31.5%가 종이신문을 통해 대학주보를 접한다고 응답했던 이 수치는 2015년 급변했다. 2015년 설문조사에서 이동형 단말기스마트폰, 태

블릿PC 등을 통해 대학주보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로 나타났다. 반면 종이신문을 통해 대학주보를 읽는 응답자는 25.8%에 그쳤다. 올해 조사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됐다. 이동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뉴스로 대학주보를 접한다는 응답자는 55.6%, 종이신문(25.4%), 고정형 단말기(16.7%)에 비해 높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종이신문보다 PC와 같은 고정형 단말기를 이용해 온라인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 비중이 격감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대학주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매체를 묻는 질문에서 더 두드러졌다. 2013년 조사에서는 21.5%의 응답자가 이동형 단말기를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2016년에 와서는 65.4%의 응답자가 이동형 단말기를 쓸 것이라 했고, 고정형 단말기를 통해 대학주보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14.5%로, 종이신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

자(19.4%)보다 적었다.

모바일, 데스크탑 등 온라인을 통해 대학주보 기사를 접한다는 이용자들의 유통 경로 역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2015년 조사에서 이메일 뉴스레터(67.9%) 소셜미디어(26.6%), 홈페이지 직접 방문(3.6%) 순이었던 대학주보 기사의 유통 채널은, 2016년 올해 들어 소셜미디어가 54.7%로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이메일 뉴스레터(40.7%), 홈페이지 직접 방문(4.1%)으로 변화했다. 향후 대학주보 기사를 보고 싶은 채널에서도 소셜미디어가 50.7%, 이메일 뉴스레터 41.8%, 홈페이지 직접 방문 6.1%로 학내 구성원의 콘텐츠 이용 경로가 스스로 뉴스를 ‘찾아가는’ 형태에서 ‘뉴스 발신자가 구성원에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어떤 뉴스 아이템을 어떤 뉴스 포맷으로 전달받기를 원하는지 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다양한 아이템, 포맷 실험을 거쳐 구성원이 원하는 내용과 형식을 전달해드릴 것이다.

## 유통경로 선호도 순서

SNS &gt; E-mail &gt; 홈페이지 직접방문

구성원의 신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최근 Space21, 프라임사업, 캠퍼스 갈등 등 굵직한 학내외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를 바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여론을 종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3년 간, 대학주보가 시도했던 혁신 역시 더 많은 학내 구성원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를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아무리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한다 해도 독자와의 공유가 있지 않다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 가디언, 슈피겔 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적인 유력지들이 앞다투어 ‘혁신보고서’를 써내면서 ‘자기반성’에 몰두하는 것은 이용자의 변화가 매체의 혁신과 그를 통한 생존을 강제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주보의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항상 구성원 옆에 자리하는 뉴스 유통망, 구성원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 개발, 대학언론이기에 가능한 대담한 포맷 실험, 이용하기에 편리한 인터페이스 등 다시 찾고 싶은 뉴스 생산자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혁신과 실험은 계속 될 것이다. 대학주보에 보내준 신뢰에 감사드린다.

## 2016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2016년도 국제캠퍼스 예비군 기본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대상자는 훈련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가. 훈련대상 :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 지원 중 1~6년차 예비군 전원  
나. 훈련장소 : 용인시 예비군훈련장용인시 청인구 운학동 목동로 87 / 55사단 172연대 3대대)  
다. 훈련일시 : 대학(학과별) 훈련 일정

훈련일자	훈련 대상 학과	시간
5월27(금)	◎ 국제대학 ◎ 국제·경영대학 ◎ 응용과학대학	
5월30(월)	◎ 체육대학	
5월31(화)	◎ 생명과학대학 ◎ 예술·디자인대학	
6월1(수)	◎ 동서의과학과 ◎ 전자정보대학	09:00 ~ 18:00
6월2(목)	◎ 공과대학 : 기계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6월3(금)	◎ 공과대학 : 건축공학, 건축학과, 사회7번시스템공학, 산업경영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환경학과 ◎ 특수대학원(교육, 이트퓨전, 테크노경영)	
6월10(금)	◎ 교직원 ◎ 외국어 대학 ◎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국제, 동서의학, 체육)	

\* 개인별 대상자 명부는 훈련 2주 전에 대학(원)별 학과 행정실 및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2. 준비물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장)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착용시 입소 불가)  
나.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 지참자는 입소불가

3. 교통 안내  
가. 학교지원 차량(임대 버스)을 강남역 및 국제캠퍼스 정문 앞 2곳에서 운용  
1) 강남역 : 1번 출구 전방 200m(번 1층 구 후방 50m) 우리은행 365코너 앞에서 07:40 출발  
2) 국제캠퍼스 : 학교 정문에서 07:50 출발

나. 개인 입소자는 학교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약도를 참고하여 09:00 이전까지 훈련장 위치에 도착

4. 유의 사항  
가. 대상자 명단에 누락된 자는 임의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 연대본부에 확인하여 대상자명단에 포함 후 훈련에 참가하여 훈련이 유료함

나. 개인 사물보관함에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 귀중품(시계, 금전, 반지 등)은 보관하지 말 것(분실시 개인 책임을 명심할 것)

다. 대학(학과별) 훈련일정은 훈련부대의 수용 인원을 고려한 것으로 훈련일자 변경은 절대 불가함.

라.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자는 예비군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 단위 훈련을 신청하여 훈련을 이수하거나 훈련하기 신청(관련서류 첨부)을 필요 할 것

라. '16년 훈련 시 입소통제 지침 : 09:00 이후 도착하는 입소불가 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됨.

마.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04 ~ 2007학년 대학생 중, 금학기 현재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거나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첨부여부 있음)  
가. “대학영어” 나. “시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다.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구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 3. 면제기준 및 자격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공개영어시험능력으로 계열별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3) 영어전 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5) 국제교류처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 [이수면제 기준]

면제종류	개별	대학	면제기준				면제내용
			TOEFL CBT IBT	TEPS	TOEIC	G-TELP	
국제영어 시행능력자	국제영어, 시험개별	외국어대학, 국제·경영대학	207 이상	76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660(Level2) 이상
국제영어 시행능력자	국제영어, 시험개별	국제영어대학, 음성과학대학 (응용수학교과, 음성불리학과, 우주과학과)	193 이상	69 이상	561 이상	650 이상	570(Level2) 이상
국제영어 시행능력자	국제영어, 시험개별	국제영어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성과학대학 (응용수학교과)	190 이상	68 이상	530 이상	640 이상	560(Level2) 이상
국제영어 시행능력자	국제영어, 시험개별	제3대학, 국제대학원	147 이상	51 이상	400 이상	510 이상	570(Level2) 이상

\*외부 공인기관 자격증 제출은 매 학기 징정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서와 상설표(면제)를 제출한다.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Intensive Program 이수자는 증빙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급증을 실시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한다(신청 기간에 제출)

\*공학인증(ABET) 대상자는 공학영재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제도 폐지

나. 외국어대학 대학영어 / 전문영어 이수 면제기준

\* 외국어대학 학생교양 이수면제사항

- 외국어대학은 학과 특성에 의해 특정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자신의 제3장공이 아닌 타 전공의 외국어 1, 2단계를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 [대체교과목]

제 1 단계	제 2 단계	총 이수학점
초급중국어원화1	초급중국어원화2	6
일본어강독1	일본어강독2	6
스페인어1	스페인어2	6
러시아어1	러시아어2	6
초급프랑스어1	초급프랑스어2	6

\* 상기과목으로 이수면제

# 학내소통, '모바일' 바탕에 '공유·자발성' 이끌어내야

학내 소통 부족, 대안은?

김규래 기자 riarbfo41@khu.ac.kr

학내 소통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모바일 환경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신문에서 진행한 '미디어 이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내 뉴스를 접하는 방식에 응답자의 62.38%가 이동형 단말기를 이용해 본다고 답했다. 학교 소식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길 바라는지 묻는 질문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라고 답한 비율이 41.19%에 달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 이용시간은 응답자의 약 32.3%가 하루 61분 이상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학교가 앞으로 모바일 미디어를 적극 이용하는 방향으로 소통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학교와 학생 간 새로운 소통 방식의 필요성은 최근 프라임 사업 준비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소통 부족으로 많은 갈등이 야기됐고, 이는 결국 우리학교에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프라임 사업은 기존의 학문단위를 재조정하는 사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구성원은 단연 학생이다. 하지만 대학 측은 사업 계획안이나 준비과정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대나무 숲이나 우리 신문 홈페이지에는 연속적인 불만의 의견이 게재됐다.

## 프라임 사업으로 드러난 소통부족 '최종 선정'에 영향 주었을 듯

프라임사업 계획안 제출 이후 미래정책원(미정원) 측에 국제캠 정원 이동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미정원 측에서는 자료를 공개한다면 이후 있을 대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에 공개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캠 자료는 공개할 수 있지만 국제캠은 학과별 인원 변동이 크니 나중에 공개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과 내 인원 변동이 클수록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강조되지만, 대학본부는 소통을 거부한 채 프라임 사업을 진행할 뿐이었다.

우리 신문 설문조사에서 '프라임사업 최종탈락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표명이 필요 한지'를 묻는 물음에 87.66%, 1,272명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 우리대학 홈페이지는 여전히 데스크탑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이 불편하다.

대학 측은 60회 이상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양 캠퍼스에서 4차에 걸쳐 소통위원회를 개최하고 간담회와 공청회를 여는 등 소통의 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노력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가영(주거환경학 2014) 양은 "주변 사람들에게 '프라임 사업 간담회를 한다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뿐"이라며 "학교 측에서 했던 공지가 적극적이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정원 측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지를 올려도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며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학내 소식을 전달할 때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http://www.khu.ac.kr>)를 주된 소통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모든 학내 공지가 게시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내 뉴스를 해당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확인하겠다는 답변은 불과 5.95%에 그쳤다.

지난 3월 2일 개강 이후부터 5월 19일까지 우리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사 공지 43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조회 수는 약 1,191 이었고, 같은 기간 게시된 434건의 일반 공지는 평균 조회 수가 약 293에 불과했다. 학

사 공지의 평균 조회 수는 일반 공지보다 조금 더 높았지만 우리학교 학생 규모가 약 2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지의 전달율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학교 웹 사이트는 모바일 페이지에 최적화 되어있지 않다. 이동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학내 소식을 접하려고 해도 PC 버전으로 웹페이지가 구동되기 때문에 편리한 열람이 어렵다. 모바일 중심으로 소통하는 요즘, PC 위주의 소통방법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 대안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소통 적극적인 페이스북 운영 요구돼

이러한 소통방식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측은 이동형 기기에 최적화된 소셜 미디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월 19일 기준 우리학교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35,851명이 소식을 받아보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14,383명, 고려대학교 4,836명, 서강대학교 4,839명, 성균관대학교 21,005명, 중앙대학교 21,001명, 한국외국어대학교 20,399명 수준이다. 서울권 사립대학과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 페이지는 규모가 매우 큰 편에 속하며, 우리학교보다 큰 규모의 페이지를 운영하는 대학은 한양대학교뿐이다.

우리학교 페이스북 페이지를 받아보는 인원이 35,851명이라는 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써 충분한 규모를 갖췄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게시되는 콘텐츠를 분석해 보면, 규모에 비해 소통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0일 까지 141일간 88개의 콘텐츠가 게시됐는데, 길게는 5일 간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 또한 주요 게시물은 '희아띠랑'의 카드뉴스나 학내 행사 공지가 대부분으로, 게시물의 평균 '좋아요'는 약 98.1개, 평균 댓글은 약 10.1개에 불과했다. 페이스북 담당자는 "페이지에는 학내 행사 관련 소식을 주로 업데이트 한다"며 "희아띠랑이 취재한 카드뉴스나 때에 따라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서울권 주요 사립대 중 가장 큰 규모인 한양대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무려 53,384명이 소식을 받아보고 있다. 콘텐츠 게시 내용을 보면 우리학교보다 더 활발한 소통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게시물은 110개로 게시물 개수만 비교하면 22개만 차이지만, 평균 좋아요가 232.5개, 평균 댓글 수는 18.5개로 우리학교보다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이경전(경영학) 교수는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 언급하며 풀 미디어(pull media)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현재 미디어 이용 실태는 푸쉬 미디어(push media)와 풀 미디어(pull media) 개념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는데, 푸쉬 미디어란 e-mail과 문자 메시지 등 소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송신해 대화를 시도하는 미디어를 뜻하며, 풀 미디어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처

럼 상호작용해 소통을 끌어당기는 미디어를 말한다. 점차 푸쉬 미디어에서 풀 미디어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학교 측에서 푸쉬 미디어인 e-mail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매일 하루에 여러 건 학내 소식을 보낸다면 받는 학생 측은 거부감이 들고 스팸 처리하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풀 미디어인 SNS에 관련 소식을 게시한다면, 강제성을 띤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학생이 적다.

## 고질적인 소통부족 문제

### 이제는 변화 시도할 때

이 교수는 "페이스북 포스팅은 푸쉬 전략으로 도저히 할 수 있고, 풀 전략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줄인다"며 "A와 B가 SNS를 이용해 소통하다가 우연히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글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때 무의식적인 끌어당김, 즉 세렌디피티(serendipity)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학교 구성원 간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문제도 많았다. 하지만 현재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소통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동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방식의 소통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학교 측이 학생과 소통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2016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안내

### ● 적용대상 2016-1학기 현재 사회봉사 1, 2, 3을 수강신청한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 (03학번 포함)이전 학생은 별도로 문의바랍니다.

### ● 과목명 사회봉사1, 사회봉사2, 사회봉사3 단계별로 이수해야 함 (ex: 사회봉사 2는 사회봉사 1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

### ● 이수구분 자유선택 (2016학년도부터 자유선택으로 변경)

### ● 학점체계 1학점(학기당 1학점, 재학 중 3학점까지 이수 가능)

### ● 이수절차

수강신청 → 인정되는 봉사활동 기관 검색 및 선정 → 사회봉사활동 ⇒ 학점인정을 위한 제출서류구비(봉사활동 확인서, 학점이수신청서, 결과보고서, 활동사진 및 설문지 작성) ⇒ 정해진 기간 내 제출

### ● 학점인정 요소

#### 봉사활동인정[중요]

##### 교외기관

- 1365자원봉사.사포털([www.1365.go.kr](http://www.1365.go.kr)) [안전행정부 산하],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http://www.vms.or.kr)) [보건복지부 산하], 서울동행프로젝트 ([dongaeng.knu.ac.kr](http://dongaeng.knu.ac.kr)) [서울시] 중 등록 되었고, 활동 확인서를 상기 사이트에서 출력해 올 수 있는 기관에 반드시 한함.

- 봉사활동 확인서인증서는 반드시 상기 사이트에서 출력해 온 것만 인정됨.

\* 봉사활동 시작전 봉사기관에 상기 사이트에서 활동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내기관

- 사전검토 및 협의된 아래 봉사활동만 인정  
※ 국제교육원 한국어도우미, 입학관리처 모교방문단, 지구사회봉사단 봉사프로그램, 학생지원처(경희봉사단) 입학신도우미, 의료봉사, 농촌봉사활동, 자연재해 복구활동, 장애우 생활도우미, 클린캡리스, 교내 캠페인, 교수학습지원센터 투디링 학습프로그램, 경희부속 중, 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지도, 자연사박물관내 자원봉사, 경희의료원내 자원봉사, 후마니타스칼리지 실천교육센터 실천활동단, 후마니타스칼리지 신입생세미나 과목 멘토)

[교외기관 활동 중 상기 3개 사이트 등록 2곳에 한하여 활동을 인정하는 사유

→ 사회봉사카누너([club.knu.ac.kr/khusge](http://club.knu.ac.kr/khusge)) FAQ에서 확인!]

· 봉사활동인정기간 2015. 9. 1 ~ 제출일 전까지 활동한 실적

· 서류제출기간 2016.05.23.(월) ~ 06.03.(금) 오후 5시30분 마감

### · 학점인정기준 및 유의사항

1. 인정시간: 32시간 이상(32시간 이상도 1학점만 인정)

\* 사회봉사 2, 3의 경우 (직전학기)사회봉사 1, 2에서 3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직전학기 초과시간은 당해학기로 인정되지 않음.  
(예: 사회봉사 1에서 42시간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 받았을 경우) 비로 다음 학기에 사회봉사 2를 신청 하였을 때, 직전학기의 초과시간(10시간)은 당해학기로 이월 되지 않음)

2. 봉사활동을 일 최대 8시간 까지만 인정

3. 학점증은 '정당 4시간 봉사시간으로 인정됨. 단, 봉사인정기간(직전학기) + 수강 신청한 학기) 동안 최대 2장(총 8시간)까지만 인정 가능함.'

\* 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되므로, 아래 경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루에 한학기(4시간)과 다른 봉사 시간을 한 경우, 총 11시간이 되므로, 3시간은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4. 재학, 휴학, 복학에 상관없이 2015. 9. 1일 이후에 한 봉사활동 부터 학점인정 가능

5. 한국어도우미는 서류제출기간 전 지구사회봉사단에서 국제교육원으로부터 학점인정 대상자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번 학기에 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모교방문단은 재학 중 1학점 학점인정 가능

7. 교내 봉사의 경우 봉사자는 활동 일자별로 시간을 기입하여(일 8시간 이내) 소속 부서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제출을 원하지 않을 시 복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꼭 지침하시기 바랍니다.)

8. 교외봉사는 반드시 인터넷(동행프로젝트, VMS, 1365)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상세내역"으로 "전체출결")

· 기타

1. 본과목은 P / F 과목입니다.

2. 사회봉사 과목은 연간체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014-학기부터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를 받았을 시 성적에서 자동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학점(평점)에는 영향 없음)

\* 이수(P)를 위해서는 재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4. 2004학년 ~ 2010학년 학생이 사회봉사 1을 이수 할 경우 문화세계지도자영역(핵심교양)으로 인정되는 것은 2015학년도 가지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후미니티스킬리지에 문의바랍니다.

\* 사회봉사 커뮤니티 및 지구사회봉사단 홈페이지에서 FAQ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직전학기 "서류제출안내 및 유의사항"도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봉사커뮤니티 : <http://club.knu.ac.kr/khusge>

- 지구사회봉사단 홈페이지 : <http://khgs.c.knu.ac.kr>

\* 기타 문의사항 : 지구사회봉사단(생활과학대학 612호)으로 방문 또는 전화 02)961-0673, 2213~4 / e-mail : leehw53@knu.ac.kr(담당: 이현호 교수)

## 보도

# “사학과 추계답사, 갈 수 있을까요?”… 줄어든 자율예산, 대안은 ‘깜깜’

## 자율예산 급감의 여파

권윤지 기자 happipice2@knu.ac.kr

#1. 2013년 새내기 윤정하(사학 2013)양은 춘계답사 일정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조선 유생의 나날’이란 주제 아래 3박 4일 동안 자운서원, 도산서원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유적지를 둘러볼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9만원인 답사비가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 한 학기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다음 학기에 있을 추계답사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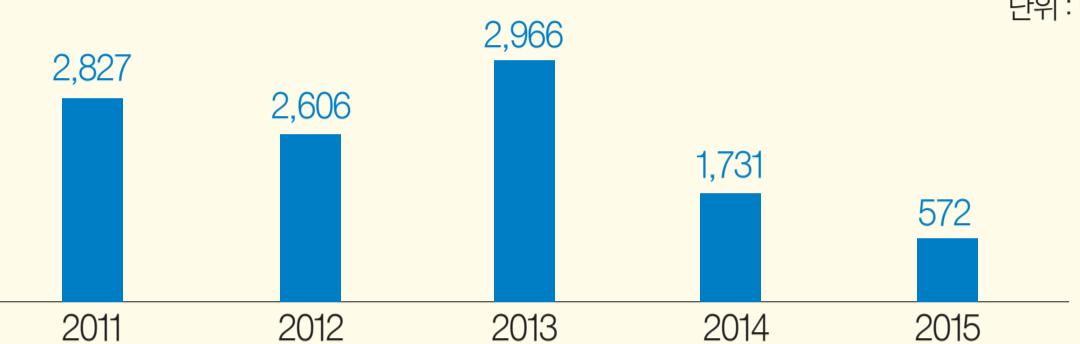
#2. 2016년 새내기 신동혁(사학 2016)군은 춘계답사 일정표를 보고 체계적인 구성에 만족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웠다. 2박 3일 동안 경주에 있는 유적지들을 위주로 둘러볼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11만원이 넘는 답사 비용도 내심 부담됐다. 선배들 말에 의하면 최근 사학과 자율예산이 급감해 학생 개인의 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한다. 사학과 16학번 대표로서 지난 4월 새내기 유통제 발언 시간에 ‘자율예산 문제로 저희가 추계답사를 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외쳐 봤지만, 아직 달라진 건 없다.

2013년 사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4개 이상의 도를 거치는 3박 4일 춘계답사를 9만 원에 다녀왔지만,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경주에만 머무르는 2박 3일의 일정을 11만 5천 원의 비용을 내고 가야했다. 3년에 불과한 시간차를 두고 있음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2013년 이후 급감한 사학과의 자율예산’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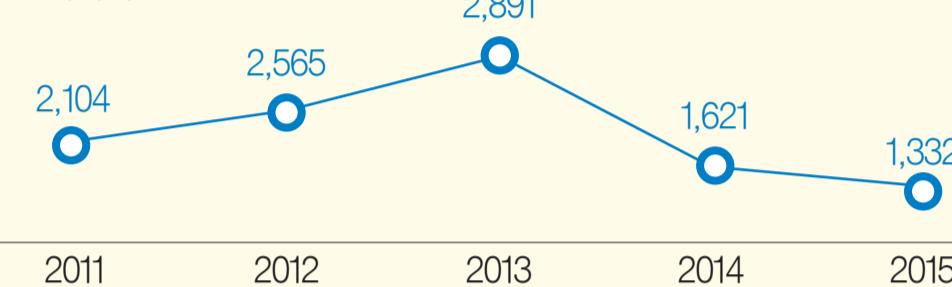
실제로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사학과 자율예산과 결산 금액의 변동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에 2,966만 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던 자율예산이 2014년엔 1,731만 원으로 급감했다. 1년 만에 약 1,200만 원이 줄어든 것이다. 2014년에 약 캠퍼스 미래정책원장과 단과대학 학장들의 회의 결과, 단과대학에 분배되는 자율운영예산을 5%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당시 2014학년도에 배정된 전체 자율예산 총액 304억 원에서 약 17억 원 가량 감축된 바 있다. 언뜻 보면 2014년에도 결산 금액이 자율예산보다 적어 넉넉하게 운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본부가 5월 중 110만 원 상당의 자율예산을 추가로 조정할 것을 각 단과대학에 의뢰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과 결산 금액이 같았다.

이후 2015년부터 학과 별로 평가 지표 순위에 따라 추가 예산을 지급하는 O&P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O&P 제도가 시행된 첫 해에 사학과가 자율예산으로 받

■ 자율예산 배정액 (2011~2015년 사학과 자율예산 및 결산 금액 변동 추이)



■ 사학과 결산



주제	2013년		2016년	
	조선 유생의 나날 : 일상과 교육으로 살펴본 유생의 삶	신라의 달, 경주를 비추다.	주제	내용
1일	09:00 학교 출발 11:00 경기도 파주 자운서원 16:30 여주 혁림사 18:00 강원도 원주 간현	08:30 학교 출발 15:30~16:30 국립 경주 박물관 16:40~17:30 오릉 17:40~19:00 월성 21:00 학술 프로그램	2016년 주제	내용
2일	11:00 경상북도 영주 소수서원 14:00 영주 부석사 16:00 영주 순흥, 읍내리 벽화 고분 17:30 영주 한국 선비	09:00~10:15 불국사 10:50~11:20 감은사지 11:30~12:45 문무왕릉 14:00~14:30 분황사 14:35~15:30 황룡사지 15:40~17:00 대릉원 18:20~19:20 안압지 21:00~ 레크레이션	2016년 주제	내용
3일	09:30 영주 순흥향교 13:00 안동 국학진흥원 14:00 안동 도산서원 17:30 예천 삼강주막	09:30~10:10 김유신 장군묘 10:20~11:20 무열왕릉, 서악동 고분군 14:00~14:40 임당동 고분군 19:00 학교 도착	2016년 주제	내용
4일	10:00 문경새재, 엣길 박물관 16:00 충청북도 충주 탄금대 19:00 일정 종료 및 뒤풀이	-	2016년 주제	내용
비용	9만원	11만 5천원	2016년 주제	내용

은 금액은 572만 원에 불과했다. 문과대학 행정실 관계자는 “예산은 학기 단위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572만 원으로 1년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예산 지급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다행히 사학과는 2014 O&P 평가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타 과에

별 교부금으로 구성된 ‘추가예산’으로 생활해 왔는데, 올해 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O&P가 시행되지 않을뿐더러 부총장 특별 교부금 1억을 제외하고는 추가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추계답사가 예정된 사학과 학우들의 2학기를 보장하라”고 본부에 요구했다.

대자보를 쓴 사학과 최은혜(사학 2013) 회장은 “추가예산이 지급되지 않아 추계답사를 못하게 된다면, 학과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번엔 정말 추계답사를 못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추가예산을 지급하는 O&P 제도는 올해도 시행된다”며 “다만, 부총장 교부금이 3억에서 ‘1억’으로, 서울캠퍼스 O&P 지원 금액이 3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5억 줄어 올해 단과대학으로 지급되는 추가 예산 금액은 총 1억 5천만 원이다”라고 말했다. “줄어든 5억은 다양한 사업들로 배분됐고, 단과대학의 자율예산으로 배부되는 추가예산 금액은 줄었지만, 학생들에 대한 지원 경비 예산은 작년 결산대비 24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래정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지원경비 중 교내 장학금이 18억, 실험실습비가 6억, 학생지원비가 8억 늘은 반면, 기타 학생 경비 10억이 줄어 올해 학생 경비는 작년 결산대비 총 24억 원 정도 높게 예산이 책정됐다. 교내 장학금 예산 확대 비중이 유달리 높은 이유에 대해 이 계장은 “국가장학금 2차 유형 지원 기준 충족과 국제화 연수, 재학생 수 증가, 외국인 학생 장학금 증가 때문”이고, “O&P제도 지원 금액이 줄은 대신 교육대학원과 체육대학 실습, 외국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확대돼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물론 자율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학과에 계만 해당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별교비장학을 제외한 자율예산 총액은 서울캠퍼스 전체에서 8% 가량 삭감됐으며, 특히 경영대학·이과대학과 의학·예술계열을 제외한 대부분 단과대학이 10% 이상 삭감됐다. 그 중 사학과 포함된 문과대학 고정 사업비 삭감 비율은 14%다. 이밖에 법과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은 각각 26%, 16%씩 삭감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일 사학과 자율예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사라진 추가예산의 행방을 공개수배 합니다! 사학과의 2학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대자보에는 “올해는 작년보다 170만 원 정도 더 많은 약 740만 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춘계답사로 이미 46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상황”이라며 “최근 사학과는 1학기는 ‘자율예산’으로, 2학기는 O&P와 부총장 특

##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①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 인터뷰

#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옥시 불매운동에 그치지 말아야”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바라보는 임신예 교수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 가습기 분무액을 살균하기 위해 사용해 온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많은 영유아, 임산부, 노인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을 앓게 됐다.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원인 미상’의 폐질환이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환경보건시민단체와 환경보건학회 회원의 자비와 자원봉사로 2012년 국내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학자의 양심으로 피해자의 편에 선 이들 가운데 경희의료원 임신예(직업환경의학) 교수가 있었다. 임 교수를 만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건조한 바람이 부는 계절을 앞두고 아이 곁에 가습기를 틀어 둔 엄마는 가습기 물통에 끈 물때를 걱정했다. TV에서도 가습기의 물통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며 가습기 위생에 신경 쓰라는 방송을 했다. 그맘때 엄마는 가습기 살균제 뚜껑 한 개 분량을 가습기 물통에 넣으면 간편하게 항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광고를 보았다. 엄마는 그 가습기 살균제를 사기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한 후 장바구니에 담았다. 소중한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던 엄마의 마음은, 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회사와 그것의 판매를 허락한 정부로 인해 한순간에 바뀌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의 수만 해도 1,528명이다. 그 중 15.6%에 달하는 239명은, 가족의 품을 영영 떠나버리고 말았다.

1994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한 이래로,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가습기를 필요로 하던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환자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 임신예 교수의 지적이다. 임

교수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판매량 속에, 2000년 넘어서부터 심각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며 규모가 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 ‘심각한 호흡기 증상’이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 15년 전부터 원인미상 폐질환 발생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 확실”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대학병원 소아과에서는 ‘봄만 되면 폐가 망가진 환자들이 이상하게 많이 오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사망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2006년에는 대한소아과학회지에 ‘원인미상 소아급성 간질성폐렴 사망사례 발생’에 대한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그러던 2011년 4월,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급성호흡부전을 호소하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들의 입원이 증가했다. 입원한 8명의 임산부 중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폐이식 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등 외부언



론에서는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인한 ‘산모연쇄사망’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병원 측은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한 감염을 조사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폐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기준의 방식으로는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자,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에 이 상황을 신고하고 원인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그 해 8월, ‘원인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동물실험을 의뢰했다. 쥐를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진행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쥐들이 죽어가고 죽은 쥐에서 피해자의 가장 큰 특징인 폐 섬유화가 발견됐다.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이 동물실험에서도 확인이 되자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전량수거명령을 내렸다. 이후 피해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었음이 명확해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대책은 제조사에 소송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 신규 화학물질은 쏟아지지만

## 검증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

피해자 접수조차 받지 않았던 정부를 대신해서, 2012년 경 환경보건시민단체와 환경보건학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실태조사였다. 임 교수는 바로 이 실태조사에 참여하며 피해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이 접수를 하면 조사자들이 전국에 흩어진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했어요. 총 70여 가구 정도를 찾아가서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기간과 사용방법, 가습기의 위치 등 통일된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이렇게 진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보건학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노출실태와 건강영향조사>라는 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과 환경보건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던 와중에 학계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이처럼 활발히 이뤄지자, 정부에서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1차 피해조사를 시작해서, 현재 4차 피해조사에 대한 접수를 진행 중이다. 이 피해조사에는 이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를 접해 본 적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임 교수는 1차 피해조사에 참여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증상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치료를 돋는 등 피해자 정신건강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는 “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또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사용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이들은 큰 죄책감에 빠져있죠.” 최근 들어 다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부각되고 있는 이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한 복판에서 초창기부터 활동한 임 교수. 그에게 ‘우리는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전문가적 조언을 구해봤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최근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인 육시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서 그치지 말아야 해요. 좀 더 본질적으로, ‘합성화학물질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유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효과가 뛰어난 살균제품을 만들기 위해 독성이 강한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한다. 임 교수는 “상용 제품의 경우 의약품과 달리 사용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사용 방법도 다양하다”며 “그만큼 합성화학물질로 이뤄진 상용 제품의 안정성은 확신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은 물론,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여타 환경성 피해사례와 달리 오히려 위생개념이 철저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청소하는 입장의 사람은 힘 안들이고 깨끗하게 닦이는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 제품들은 세균이나 곰팡이 등을 쉽게 제거하는 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임 교수는 “국내에서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이유는 안전하지 않은 사용방법에도 큰 원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살균제는 가습기 물통을 세척할 때에만 잠시 사용하고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데, 기업 측이 잘못된 사용법을 제시하여 피해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사용방법에 따라 매우 달라지므로, 제품별로 안전한 사용방법을 숙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임 교수의 조언이다.

매년 수십만 개의 신규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신규 화학물질로 제조한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건강 관련 이슈가 문제가 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주로 일반인의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건강 관련 이슈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 교수는 “사용자가 시제품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판단이 들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우선 치료를 받은 후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 시기에 사용자의 신고가 모이게 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회사에 연락하거나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유해 화학물질을 배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1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 2 KHU Global Engagement 3 후마니타스칼리지 2.0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 대학이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와 함께 ‘더 나은 문명’을 추구합니다

인간 대신 기계가 생각하는 시대, 인간의 인간다움을 재정의해야 하는 사회, 자속 가능한 미래를 깊이 성찰해야 하는 문명—경희대가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축구하여 대학의 새로운 가치와 지향점을 추구합니다.  
문화사적 대전환을 예의주시하면서 50년, 100년 후 인간과 지구에 도전합니다.



바이오헬스 동서 의료·보건의 미래

미래과학 인간 친화적 성장동력

인류·문화 전환설계를 통한 지속가능 문명

문화예술 인간의 무한한 정신세계 고양

사회체육 몸과 문명의 조화와 균형

바이오헬스

‘동서 의료·보건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계협력 천연물신약, 바이오헬스, 실버’

미래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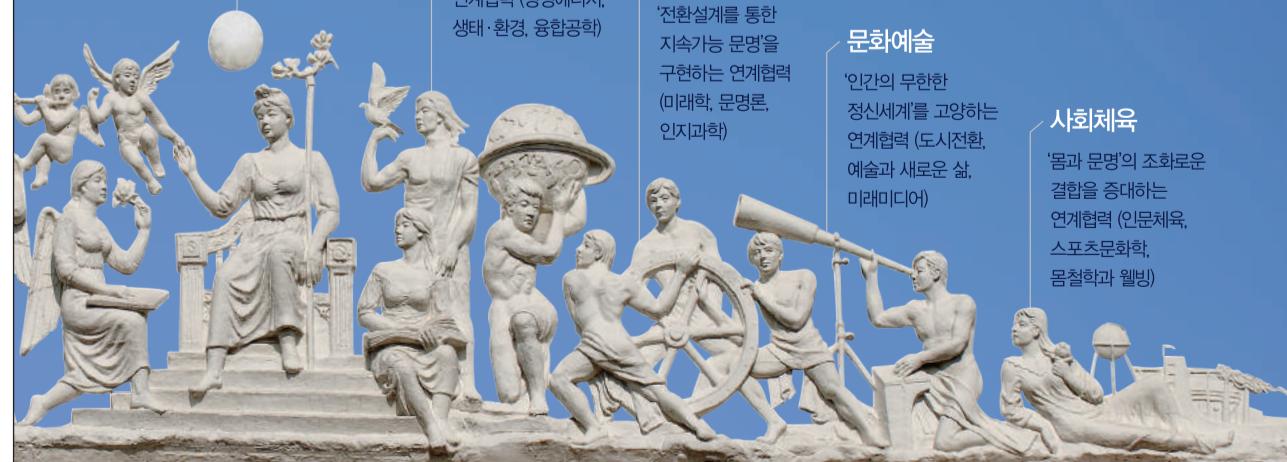
‘인간 친화적 성장동력을 추구하는 연계협력 (청정에너지, 생태·환경, 융합공학)’

인류·문화  
‘전환설계를 통한 지속가능 문명을 구현하는 연계협력 (미래학, 문명론, 인지과학)’

문화예술  
‘인간의 무한한 정신세계를 고양하는 연계협력 (도시전환, 예술과 새로운 삶, 미래미디어)’

사회체육

‘몸과 문명의 조화로운 결합을 증대하는 연계협력 (인문체육, 스포츠문화학, 몸철학과 웰빙)’



경희대 서울캠퍼스 본관 상단 부조를 다듬은 것입니다. 1956년 원공된 본관 부조는 경희의 청학이념 ‘문화세계의 창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2016 / 2017 석학초빙 분야 : 우주론, 미래학, 문명사, 과학철학, 인지과학, 평화학, 종교학, 미학, 예술사 분야 00명  
분야 : 서울캠퍼스 교무과 02)961-0051 국제캠퍼스 교무과 031)201-3031 임용정보 : bang.khu.ac.kr/hjis2/